



03차시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사회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다문화와 많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음.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 즉 모든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분리할 수 없는 속성으로, 있는 그대로의 문화, 즉 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문화다양성 개념은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개념이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음.

첫째,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음. 스크린 쿼터제란,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였으나, 영화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무산되었음. 스크린 쿼터제로 인해 문화다양성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화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투쟁으로만 인식하게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낳았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할리우드와 한국영화 등 국가 간의 문화산업만 생각했을 뿐, 한국 안에서의 소수 영화들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임.

둘째,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을 들 수 있음. 2006년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문화다양성 정책은 인종 및 민족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언어 등의 차이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임.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강조하는 정신과 가치를 포괄하지는 못했음.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유네스코가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었고, 2003년 유엔에서 최초로 문화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제가 발의되었으며,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10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 5월 28일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제연합 교유고가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음. 또한 제2조제1항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 둘째,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셋째,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 넷째,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다섯째,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 여섯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 일곱째,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 여덟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을 비교하면,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함.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 트랜스젠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와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 예술 등 비주류문화를 대상으로 함. 정책 대상만 보더라도 문화다양성 정책 안에 다문화 정책이 포함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음. 정리하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이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성별, 종교, 언어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2. 다문화 사회의 형성

전 지구적으로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 따르면, 국제이주란, 1년 혹은 그 이상을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행위를 말함. 국제이주자란, 1년 혹은 그 이상을 출생국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즉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국제이주자에 포함되는 것임. 반면 여행객이나, 자원봉사단,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이주자라고 하지 않음.

국제이주기구(IOM)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 살지 않는 사람의 수가 약 2억 4400만 명에 달 한다고 함.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것임. 가장 이주를 많이 하는 나라로 인도(15.6million), 멕시코(12.3million), 러시아(10.6million), 중국(9.5million), 방글라데시(7.2million)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 오히려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해 왔음. 예를 들어, 빙하기에는 사람들이 극심한 환경을 피해 이주를 하였으며, 전쟁 및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이주하기도 함. 이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인류의 역사는 세계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좀 더 추운 지역까지 그들의 삶의 영역을 넓혔으며, 어둠을 밝혀 생활하는 시간도 늘어났음.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활의 규모를 크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었음. 15세기의 중상주의, 18세기의 산업혁명, 20세기 초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1990년대 초 사회주의의 몰락과 1995년 WTO의 출범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거대한 하나의 시장과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계기로 만들었음. WTO 출범 이후 국가 간 지리적,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경제, 문화, 무역,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어가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대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상 모든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초기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독일, 중동 등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였으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들은 단순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노동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자리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되었음. 한국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91년 10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도입되면서부터임. 1994년 5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 및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미흡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었음.

또한 1990년대 초에는 농촌지역의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에 처하자, 각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이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몽골 등에서 온 여성들이 농촌총각과 결혼했으며, 이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인구 이동 및 사회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서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의 자연 증가가 거의 멈추었으며, 이에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3국으로부터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난제에 부딪혔지만,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표적 다문화 국가가 되었음. 더 이상 호주는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음. 또 다른 예로 독일을 들 수 있음.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현재진행 중에 있음. 저출산으로 경제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은 독일 경제에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음. 그러나 독일은 이민국가임을 선포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있음. 노동이민을 포용하고, 이들에게는 영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독일은 노동인구와 경제인구를 외국인으로 채움으로, 독일 경제의 빨간불을 끄는 역할을 하였음.

또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가는 불법이주자 및 난민 수 증가도 다문화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수많은 난민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였음.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국제이주로 인한 인구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다문화 사회의 특징

1) 다문화사회의 모형

다문화사회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용광로이론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샐러드볼 이론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음.

용광로이론은 동화주의적 입장으로 소수집단인 이민자에게 다수집단의 사회문화적 제도와 관행 속에 융해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들의 소수문화를 인정해주지는 않음. 용광로이론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용광로이론은 정책적으로 이주민들이 다수집단의 적응을 요구함. 예를 들어, 초기 미국이나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민에게 동화주의적 패러다임을 요구하였음. 또 다른 예로, 초기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예절문화를 배우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요구하였음.

샐러드볼 이론은 다문화주의적 입장으로 소수집단인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2)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징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급속하고 독특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음.

2007년에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음. 2017년 2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86,35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음. 이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 수 대비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도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2012년 148,498명, 2013년 150,865명, 2014년 150,994명, 2015년 151,608명, 2016년 152,374명, 2017년 2월 현재 152,93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적으로는 중국(중국동포 포함) 37.4%, 베트남 27.4%, 일본 8.6%, 필리핀 7.6%, 캄보디아 2.9%, 타이 2.1%, 몽골 1.6% 순으로

나타났음. 남자가 15.8%, 여자가 84.2%로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었음.

둘째,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임.

2017년 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체류 외국인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중국 동포 포함), 베트남, 미국, 타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러시아, 네팔, 타이완, 스리랑카, 캐나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영국, 뉴질랜드 등 다양함. 규모가 작아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국가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국가의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즉 한국도 다인종화, 다민족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임.